

유럽에서의 출생:
유럽 박물관의 이민 문화 경험 국제 프로그램
Born in Europe: an International Programme on
Representing Migrant Experiences in European
Museums

우도 괴스발트(Udo Gößwald)

독일 노이콜른 박물관 (Museum Neukölln), 관장



유럽에서의 출생: 유럽 박물관의 이민 문화 경험 국제 프로그램

● 우도 괴스발트(Udo Goßwald)

독일 노이켈른 박물관 (Museum Neukölln), 관장

'유럽에서의 출생'은 2000년에 노이켈른 헤이마트박물관(Heimatmuseum)이 포르투갈 기업 박물관 연합(Portuguese Association of Company Museums, Aporem), 리스본 물 박물관(Lisbon Water Museum), 코펜하겐 국립 박물관(National Museum Copenhagen), 덴마크 오르후스 여성 박물관(Danish Women's Museum, Aarhus), 오스트리아 비엔나 민속 생활 예술 박물관(Austrian Museum of Folk Life and Folk Art, Vienna), 국립 세계 문화 박물관(National Museum for World Cultures, Göteborg) 등과 협업한 연합 프로젝트로서, EU의 '문화 2000(Culture 2000)' 프로그램의 지원 및 재정 지원(참조: <http://www.born-in-europe.de>), 그리고 베를린의 박물관 교육부서(Museumspädagogischer Dienst)와 베를린-노이켈른 지역 행정의 유럽 대표 사무실의 친선적인 지원 하에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몇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 유럽 내 문화적 변화와 관련한 이슈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변화는 오늘날 유럽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여러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게 의미하는 바의 변화를 말한다. 교양 있고 진보적인 유럽이 이민과 글로벌화로 나타나는 문화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박물관은 이러한 과제 해결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박물관의 소장품들이 한 사회나 어느 시대의 지배적인 정치 집단에서 성취한 통합이나 분열의 영향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럽의 박물관은 개인과 사회 집단, 특히 이민자들 간의 정체성 충돌에서 발생하는 현안들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서, 발표, 행사, 특별 공개 포럼, 교육적 수단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로써 유럽의 유산이 단일 문화가 아니라 수 세기 동안 민족, 종교, 문화적 다원성과 이민을 통해 형성되어 온 된 매우 복잡한 문화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헝가리 작가이며 칼데제상(Karlspreis) 수상자인 죄르지 콘라드(Gyorgy Konrad)는 "유럽은 입헌 국가와 인권의 고향이지

만 또한 자신의 조국에 대한 사랑이 유럽 전체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는 곳"이라고 했다. 스위스 작가 아돌프 무쉬크(Adolf Muschg)는 유럽 내 국가들이 단일의 '유럽적 정체성'으로 성급히 통합되는 것에 반대하는 대신 유럽을 하나의 메타포로 이해하려 했다. 그것은 평화와 안보 속에 살면서 동시에 새로운 자극들을 수용하는 것이며, 사실상 이것은 조국에 있다는 기분을 주고 강화해주는 것이다.

수백 년 동안 유럽 내 사람들의 이주는 지역문화와 국가문화에 영향을 주었고, 문화의 다양성, 기술, 건축, 문학, 그리고 예술을 풍요롭게 해주었다. 경제적 미래가 암울했던 사람들, 박해 없이 종교 활동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 그리고 고국에서 사회적 권리, 민주주의, 자유 등을 위해 투쟁하다가 안정을 찾아 망명길에 오른 사람들은 국경을 건너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국경을 넘나드는 수많은 이민자들에게 대한 경험은 유럽 사회가 접한 중요한 경험이었다. 이러한 이민 문화의 흔적은 거의 모든 유럽 박물관에서 발견될 수 있지만 유럽 문화유산의 차원에서 이들이 갖는 의미와 가치는 아직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2000년 베를린의 노이켈른 박물관은 유럽 내 정체성과 유럽의 미래에 대한 탐색을 연결하기 위해 '유럽에서의 출생'이라는 5개년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박물관의 환경에서 출생과 이민의 문제를 되돌아보는 것이었다. 어린이와 출생 문제를 다룰 때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 근심 등의 복합적인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출산의 과정으로서 출생은 아이를 세상에 나오게 하는 동시에 이들과 평생의 유대 관계를 형성시킨다. 아이들은 미래이며, 또한 희망과 소망을 반영한다. 따라서 출생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메타포이자, 삶이 계속되어야 하며 인생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상징이다. 최근 유럽에서는 이민자들의 자녀가 무수히 태어났다. 그렇다면 그들의 다양한 민족적이며 종교적, 문화적인 영향이 향후 유럽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유럽의 문화적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 즉

항시 진행 상태에 있는 개방적이고 복잡한 미완의 게임이다. 그러나 정체성에 대한 각각의 논의는 동시에 '타인'에 대한 공격적이고 편협한 태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수반한다. 이것이 바로 "유럽에서의 출생" 프로젝트가 새로운 유럽의 개념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이유이며, 이 아이디어는 영국 더럼 대학교(Durham University)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도시 민족학자이자 지리학자인 애쉬 아민(Ash Amin)의 아이디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새로운 유럽에 대한 필자의 비전은 두 개의 기둥으로 지지 되는 문과 같다. 기둥 하나는 그리스어 에소스(Ethos)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거처 또는 쉼터의 성질로 정의된다. 기둥 자체는 현대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행이나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을 수용한 중세 도시의 피난과 현대의 장소에서 발견된다. 두 번째 기둥은 우리는 자유롭게 태어난 것이 아니며 오직 대화와 연대를 통해 자유에 이를 수 있다고 한 소크라테스철학의 전통 위에 세워졌다. 이는 상호 관계의 원칙을 정체성이 형성되는 기반으로 삼는다. '자유'는 우리 내부와 우리 사이에 있는 이방인과의 유대와 그들을 위한 홍보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이유는 '타인'으로 규정되는 이방인이 없다면 자신 또한 정의될 수 없기 때문이다.¹⁰ 이 문의 세 번째 요소인 지붕 또는 연결 부위는 개개인의 인격에 대한 것으로 개인의 습관, 성별, 갈망, 행동의 차이를 존중하고 창의에 대한 개인의 무한한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

서로 다르다는 점을 수용하는 것은 우리가 쟁취해야 할 문화적 미덕이다. 이 모두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개개인에게 큰 시련을 주었던 20세기 유럽 총독의 여파는 아직까지도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따라서 유럽에 대한 대안적 아이디어는 '유럽적'이기 위한 본질로서 이방인과의 공감과 유대를 취급하기 위해 철학적 에소스 내에 위치해야 한다. 필자는 이것을 '유럽의 문'이라 부르고 싶다. 하지만 옛 중국 속담에 있듯이, 이 문을 통과하는 이방인은 인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방인은 그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그 유산을 배우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기여한다. 현대는 제한된 시간에만 제공되며, 통합은 언제나 양방향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잡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필자는 베를린 노이클른 헤이마트 박물관이 주최하여 2004년 8월 20일부터 10월 17일¹¹ 까지 베를린 마틴-그로피우스-바우(Martin Gropius Bau)에서 열린 '유럽에서의 탄생' 국제 협력 프로그램 중 한 부분인 '유럽에서의 탄생-새로운 정체성' 전시회의 구조와 내용을 기록하고자 한다. 이 행사

는 유럽 내 기원과 정체성, 미래 등에 관한 논의를 장려하고 다양한 민족 문화적 기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두고 단지 무관심한 관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신 지금은 바로 '타인'에 대한 상호 이해와 진정한 수용을 위한 기초를 공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럽 전역에 있는 두려움과 기대를 규명하고 해결해야 할 시간이다.

각 박물관에 속한 이 연합 프로젝트를 위해서 다수의 사진작가와 학예사가, 신생아가 있는 (전 세계에서 온) 이민자 가정을 방문하고 그들의 일상을 기록했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로 바로 이 전시회가 만들어졌다. 조사를 통해 선정된 98개의 사진이 특별 유럽 갤러리로 공개되어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여러 협력 박물관에 전시되었다.

이 전시회는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유럽의 문(Gate of Europe)

'유럽의 문' 전시 부분의 주 목표는 유럽 국경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다. 이는 지리학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스위스의 작가이자 전 베를린 예술 아카데미(Academy of Arts in Berlin) 원장인 아돌프 무슈크(Adolph Muschg)가 "우리에게 유럽이 의미하는 바는 국경에 대한 우리의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 것처럼, 중요한 문화적, 역사적 양상 또한 지니고 있다. 19세기 후반에 강력한 국가의 개념이 나타나기 전까지 유럽 내 (그리고 유럽 밖으로도 역시) 여행과 이민은 자유로웠다. 하지만 경제적 미래가 암울한 사람들이나 탄압에 대한 공포 없이 종교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조국에서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 자유 등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국경을 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반부터는 국경을 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현재는 EU의 쉥겐 조약(Schengen Agreement) 국가들 사이에서 이동의 자유가 있지만, 그 외의 이들에게 유럽의 문을 넘기 위한 제약은 심지어 난민들이나 망명자들에게조차도 엄격해졌으며, 훨씬 더 큰 수의 경제적 이민자들을 포함한 다수가 불법으로 EU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종종 목숨이 위태로워지기도 한다.

이 전시회의 "유럽의 문" 부분 내의 첫 번째 전시물은 아나 헥켈-도너스마크(Anna Henckel-Donnersmark)가 준비했다. 전시실에 들어가면 관람객은 가까이 놓인 두 대의 TV를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대대에 떠 있는 작은 파란색 보트를 보여주는데, 파도에 밀려 끊임없이 왔다



그림 1
베를린 마틴-그로피우스-바우(Martin Gropius Bau)에서 열린 '유럽에서의 출생 새로운 정체성' 전시회 (2004년 8월 21일 - 10월 17일)

갔다 하는 난민 보트가 보인다. 다른 TV에서는 급히 넘쳐흐르는 물이 클로즈업 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삶의 흐름과 역동성을 의미한다. 이 둘을 같이 놓고 보았을 때, 이 화면들은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상징하고, 삶과 죽음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상황을 보여주면서 감상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

그 다음으로 관람객들은 스페인의 사진작가 마티아스 코스타(Matias Costa)의 16장의 사진 작품 시리즈를 만난다. 이 사진들은 주로 모로코 해안 세우타(Ceuta)의 스페인인 거주지에 있는 아프리카 난민들을 보여주며, 다른 사진들 중에는 스페인 남부 해변 또는 프랑스 상가트(Sangatte)에 있는 난민캠프의 난민자 모습도 담고 있다. 이 사진들을 통해 코스타는 유럽에 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조명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이들의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보여주었다. (4,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럽 해안으로 오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오스트리아의 예술가 헤랄드 슈머자드(Harald Schmutzhard)는 유럽 국경의 난민들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세 대의 모니터를 이용해 '국경 구출(Border Rescue)'이라는 비디오 설치 작품을 선보였다. 한 모니터는 유럽에 오는 중 질식 또는 익사한 것으로 알려진 난민들에 관한 날짜, 숫자, 위치 등을 나타냈다. 다른 모니터는 체코와 오스트리아 간 국경을 넘는 망명자들을 돕기 위해 인터넷에 올라온 영화들을 심장 박동 소리와 조합하여 보여주었다. 마지막 비디오는 물개들이 헤엄치는 동물원의 물웅덩이가 등장하는데, 구석에는 죽은 것으로 보이는 물개 한 마리가 누워있다. 관람객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이 물개가 물 위로 떠올라 '구출되기를' 지켜보았다.

정체성 찾기

이 전시회의 두 번째 구역은 다양한, 특히 혼혈 문화적 배경을 가진 젊은

이들의 유산에 초점을 두었으며, 유럽 내 그들의 정체성을 새로이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민자들은 두 개의 다른 세상 사이에 사는 듯한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현실을 자주 경험한다. 난민으로서 유럽에 사는 이들은 불확실한 법적 신분 때문에 다른 이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체성의 문제는 특히 더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부모들이 이미 여러 세대 동안 유럽에서 살아온 가정에서도 나타난다. EU의 확장과 함께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한 문제 역시 나타나고 있다.

피터 키스(Peter Kees)의 전시물 "정체성 체크포인트(Identity Check-point)"는 정체성과 유산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70년대 스타일의 책상과 의자 두 개가 있는 사무실 분위기의 전시물은 이민자들이 유럽 국가에 들어올 때 등록 및 심의를 거치는 외국인 관청을 연상시킨다. 피터 키스는 베를린, 부다페스트, 브라티슬라바, 프라하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행인 등록 절차를 이 전시에서 시도해 보았다. 그들은 민족에 따른 그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자가격 평가를 종이에 적도록 요구 받았다. 또한 각각의 면담자는 ID 카드에 사용할 사진을 찍고 DNA 테스트를 위해 신체 부위를 제공하도록 요구 받았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을 적절히 설명하기 위해 대단히 노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들 대다수는 그들의 정체성이 구체적인 구조를 가졌으며, 거기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주의 경험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상당 부분 자기 투영과 내적 소망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다. 이 전시는 분명히 '또 다른 자신'과의 직면이었을 것이고, 많은 관람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고,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이민 배경을 가진 유럽인으로 보는지에 대해 생각했을 것이다.

프랑스 예술가 실비에 블로쉴(Sylvie Blocher)의 비디오 작품 '나와 우리(I and Us, 2003년 베니스 비엔날레 출품작)'는 정체성 찾기의 매우 개인적인 측면들에 초점을 맞췄다. 이 작품은 건축사, 사회학자, 그리고 블



그림 2
2001년 11월 4일 베를린에서 스리랑카 출신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 막산과 마티산

그림 3
2001년 12월 27일 베를린에서 브라질 출신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 루카스



그림 4 2001년 9월 28일 베를린에서 터키 출신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멜리사



그림 5 베를린에서 몽고 출신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토골도

로쎬 자신과 같은 예술가로 구성된 도시야영(Compement Urbain)이라는 팀과 함께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파리 근교의 뷰도테(Beaudotte)에서 제작되었다. 이 작품에는 뷰도테 주민들이 참여했는데, 그들은 모두 똑같은 검은 바탕에 붉은 글자들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비디오 촬영에 임했다. 티셔츠에 쓰인 글들은 소망, 희망, 근심, 또는 정치적 발언 등 매우 개인적인 것들로, 이를 대중에 공개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말들이었다. 3x4m 크기로 늘어선 그들을 보면서 관람객들은 즉시 특별한 친밀감을 느끼고 내면에서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 또한 이 작품에서는 이방인에 대해 특별한 형태의 공감과 존중을 갖게 된다. 앞서 유럽 해안에 도착한 익명의 사람들에 관한 섹션을 관람했었던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매우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이주자들을 만나게 된다.

이탈리아의 사진작가 데니스 베르닐로(Denise Vernillo)는 독일 주니어 리그의 최상위부에서 활동하는 베를린-노이켈른의 타즈매니아 그로 피우스 슈타트(Tasmania Gropiusstadt)의 18세 미만 축구팀원들을, 초상화 시리즈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사진에 있는 베를린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터키, 보스니아, 세르비아, 폴란드 출신 등의 이민자 부모를 두었으며 유럽 축구 리그의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독일로 건너온 경우가 많았다. 그들의 주요 목표는 프로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며, 이들 앞에는 수많은 규율과 험난한 길이 놓여 있다. 이 전시회의 본 전시 섹션에서는 젊은이들의 정체성을 이들이 추진하는 것과 성취하려는 것의 두 가지로 나타냈다.

안드레아 베렌트(Andrea Behrendt)의 양방향 멀티미디어 응용 작품은 베를린-노이켈른의 한 지역 체육관에 있는 10학년 학생들을 소재로 다뤘다. 학생들은 세계 지도에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들이 태어난 곳을 표시하여 그들의 가족적 유산을 묘사하도록 부탁 받았다. 이 지도에 있는 각각의 학생을 클릭하면 음성 안내가 나오며, 해당 학생이 자신의 사회적 추억의 한 부분으로 선택한 사진과 물품에 대한 안내가 나왔다. 이러한 물품 중에는 전시회에 직접 전시된 것들도 있었다.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개인의 추억이 이주와 가족 유산의 경험으로 연결되었다. '중간자(being in between)'라는 작품 역시 안드레아 베렌트가 감독한 것으로, 서로 다른 세계의 영향을 받는 베를린에 사는 여섯 소녀들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아나 헨켈-도너스마크(Anna Henckel-Donnersmark)의 비디오 작품 "하이마트 유로파(Heimat Europa)"에서는 베를린에서 살기로 결정한 폴란드, 벨기에, 프랑스, 미국, 일본, 독일 출신의 이주 국적 커플들이 문화적 풍요와 그들에게 있어서의 유럽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들은

또한 유럽에서 사는 것의 어려움, 언어 장벽, 외국인 혐오증, 그리고 영원한 이방인으로 비취지는 것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들은 파트너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서 그들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나라에서 출생

유럽 국가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많은 이민자들은 새로운 환경의 전통과 문화적 관습 등을 금세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조국에서 한때 강했던 사회적 관계가 새로운 국가에서 결여되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합동 박물관 프로젝트 '유럽에서의 출생'의 주요 부분은 바로 각 협력 박물관에서 온 사진작가와 학예사들이 각각 고텐부르크, 코펜하겐, 베를린, 아르투스, 리스본, 코펜하겐에 거주하며 자녀가 있는 다섯 이민자 가족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일상을 기록한 것이다.

다섯 센터에서 행한 작업의 결과, 98장의 사진이 선정되어 고텐부르크, 아르투스, 리스본, 코펜하겐 등에서 특별 유럽 전시회로 공개되었다. 베를린의 경우 일반적인 박물관이나 갤러리 벽에 사진을 전시하는 대신 그것들을 땅에 전시하거나 벽에 기대어 놓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간에 길고 좁은 복도가 만들어지는데, 이는 예컨대 산고의 고통 등을 연상시켰다.

이 작품은 또한 가족사진을 편안히 걸 수 있는 자신의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장소를 갖지 못하고 아직 사회에 정착하지 못한 이민자들의 불안한 상황을 보여주었다. 이 전시에서 사람들은 전시된 그림들 사이를 매우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오면서 이 그림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았다. 이는 관람객이 이 사진 속의 사람들을 경시한 것이 아니라, 관람객이 은유적으로 사진을 집중해서 애정과 동정을 갖고 볼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었다.

사진들 위 흰 벽에는 신생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와 함께 아이들의 출생지와 부모의 이름 등이 적혀있었다. 또한 아래의 예와 같이 각각의 이민자 가정의 인터뷰에서 따온 내용이 소개되었다.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느낌이 들 때가 가장 힘듭니다. 마치 모든 걸 빌린듯한 기분이죠." (리스본에 거주하는 브라질 출신 가족)



그림 6
베를린에서 몽고 출신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토골도
그림 7
2001년 7월 31일 베를린에서 태어난 유쓰라

"불평할 일은 많지만 자신이 불평을 하도록 허용되는 지가 매우 중요
합니다."

(아르후스에 거주하는 터키 출신 가족)

"이곳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전에 살던 곳은 더욱이 고향 같지
않았습니다." (베를린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출신 가족)

"덴마크에서 자유로운 가족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코펜하
겐에 거주하는 아프간 출신 가족)


"우리 아이들은 쿠르드어와 스웨덴어를 모두 배울 겁니다. 여기서 자
라고 유럽인으로 성장할 겁니다." (고텐부르크에 거주하는 이라크-쿠
르드 가족)

갤러리가 끝나는 지점에서 방문객은 큰 글자로 적혀 있는 UN 사무총
장 시절의 코피 아난(Kofi Annan)이 남긴 말을 보게 된다.

"유럽 사회에 영주하게 된 이민자들의 통합은 유럽의 생산성과 인간
의 존엄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메시지는 명백합니다. 이민자들은

유럽이 필요하고 유럽 또한 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폐쇄된 유럽은 더
가난하고, 더 나쁘고, 더 약하고, 더 늙은 유럽입니다. 개방된 유럽은 더
강력하고 더 부유하며 더 젊은 유럽입니다. 우리는 이민에 대한 관리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이민자들은 해결책의 한 부분이지 결코 문제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¹²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 특히나 이 전시회에 대한 반응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이 전시회는 이민 배경을 가진 많은 이들을 포함하여
주로 젊은 국제 관람객들을 유치했다. 사람들은 빠르게 그들의 의견을 말
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감정적 반응을 보였다. 출생, 삶, 성장, 정체성
탐색, 근심, 희망, 미래에 대한 소망 등을 표현하기 위한 기억의 상기 등은
이 "유럽에서의 출생" 프로젝트의 핵심 요소들이었다.

나는 이 프로젝트를 이제 막 시작한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문화 프
로젝트로 본다. 이러한 활동은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와 동감을 보여주
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지원되어야 하며 또한 이는 우리가 유럽과 유
럽 문화에 대한 새롭고 보다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주석

10 Amin Ash, From ethnicity to empathy: a new idea of Europe, 24. July 2003 at www.openDemocracy.net

11 Other showings of versions of the exhibition included the Austrian Museum of Folk Life and Folk Art, Venna, April October 2002, Watern
Museum, Lisbon Septembet 2002, Museum of Ceramics, Loures, Portugal, December 2002 / March 2003, and the National Museum for
World Cultures, Goteborg, Sweden, June 2003.

12 Kofi Annan, UN Secretary-General: Speech to the European Parliament on the occasion of receiving the Andrej-Sacharow-Award,
Brussels, 29. January 2004